

제7회 부산연극제



'89.3.18. ▶ 4.11
시민회관 소강당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후원 : 문예진흥원·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예총부산지회·부산문화방송·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본부·부산일보사·국제신문사·항도일보사·기독교부산방송



教師劇團
한 새 벌

제 7 회 부산시 연극제 참가작
제 24 회 정기공연

山 茱 萸 (산수유)

'89. 4. 9~11
시민회관 소강당

작/오 태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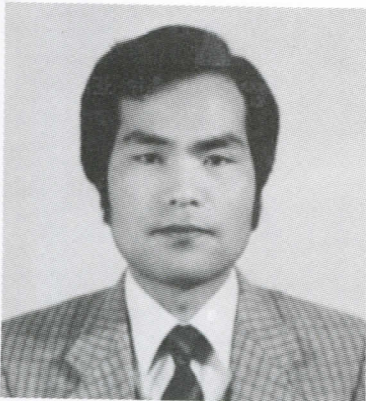
연출/한 상 한

제작/김 병 락

기획/윤 병 선

일괄된 자세로

대표의 변



김 병 락

1973년 콤포지션F를 공연으로 출범한 교사극단 한새벌의 屋霜이 어언 16년이 되었다.

척박한 향토 부산의 문화풍토 하에서 연극예술 발전의 一翼을 담당하며 고난을 헤쳐왔는데 자부과 긍지가 앞설수 밖에 없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年輪에서 어찌 浮沈의 흔들림이 없었을까.

그러나 내고장 연극예술의 旗手가 되리라는 단원들의 순수하고 겸허한 자기희생이 있었기에 쉽게 극복될 수 있었다. 연극에 대한 남다른 집념으로 무장된 단원들이었기에 한새벌식의 끈기와 우직함으로 한새벌식 연극 창조에 자신을 投身하였고 오늘의 한새벌다움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糊塗된 풍토에 굴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亞流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스스로를 채찍했다.

그동안 지방연극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연극적 세계와 우리가 살고있는 현사회에 대한 문화적 책임에 투철해야 하기에 再同參을 결행한 것이다.

결코 상호불신이나 오만과 편견이 판치는 연극은 窶관으로 轉落할 뿐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부산연극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는 念願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연극제작의 要素가 全力投球해도 힘에 벅찼던 대작 '산수유'였다.

심판은 관객에게 미루면서, 바쁜 신학기임에도 불구하고 勞心焦思해 주신 단원들의 노고에 깊은 謝意를 표한다.

■ 연출의 말



한 상 한



조연출/정 남 식

감기면 풀고

오태석은 우리의 본능을 원초적인 모습으로 포착한다. 사랑, 미움, 질투, 욕망, 야심, 공포, 삶, 죽음 등 인류 보편의 감정을 우리의 삶속에 전치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이 작품 '산수유'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6·25를 배경으로 한 피비린내나는 민족통사의 역사적 사실을 표면구조로 하여, 죽음과 탄생(재생)이라는 영원한 인간의 보편적 주제를 심층구조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적 의식의 정형이 한을 원으로 풀기보다 정한으로 간직하듯이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이라든가 신분간의 싸움은 없다. 경각지하의 소년을 구함으로써 모두의 이픔을 승화시키고 미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원만이 있는 것이다.

무릇 연극예술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칫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는 인간의 삶과 밀접해야 하는 예술행위가 삶과 동떨어진 자기 도취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한 노력과 부단한 자성, 자각만이 연극예술의 순수함과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영기면 풀고, 풀리면 당기는 수도승의 자세와 장인의 마음으로 일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각오이다.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과거와 잊혀져 가는 우리의 토속적 심성을 되찾기 위해 이 작품을 선택했다. 작품이 요구하는 제의성과 집단적 총체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형상화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스피디한 오태석 특유의 대사를 제의적마임과 융합시키는 문제등을 절제된 집단의 앙상블로 얼마만큼 형상화시켰느냐하는 문제는 그 판단을 관객에게 맡길수 밖에 없다.

교사로서는 과다한 업무로 부담스런 학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전력투구해준 단원 여러분과 작품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주신 이충섭 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 품 해 설

“오태석의 작품 세계”

오태석의 작품 세계

우리 재래의 풍속적이고 전통적인 곳에서 작품의 소재를 즐겨 찾는 오태석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제의성이다.

탄생,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무속 등과 같은 통과제의를 통해 과거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듯이 죽음과 탄생의 윤회를 제의적으로 표현한다. '초분' '태' '물보라' 그리고 이 작품의 경우에서는 그 극형식이 완전한 제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극적 장엄미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설명적 대사와 평면적인 전달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담한 대사의 생략과 압축으로 대사는 시적 밀도를 지니며 극의 템포를 빠르게 전개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짧게 함축된 극언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의 조명을 서사적 구조의 유용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세째는 즉흥성이다.

기존 언어의 틀을 파괴하고, 플롯을 해체시키며, 인물을 분산시키고, 주제마저 익곡시켜 무의식의 세계를 현대적이고 실험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이다.

오태석은 서양 연극이 지닌 한계를 절실히 인식하고 보다 든든하고 보다 확실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형적 한국 인간성의 내면'을 찾기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존 연극의 상투형들을 과감히 파괴하고 예술 행위와 민중의 의지를 일체감있게 승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 한국 희곡의 바람직한 정형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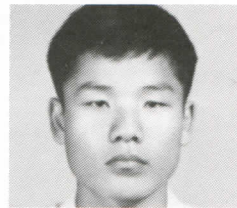
구씨 / 주 용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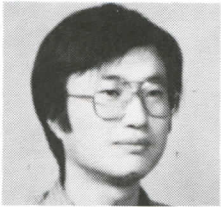
근배 / 나 종 기



고모 / 우 혜 선



문씨 / 이 종 응



장씨 / 권 성 부



길산댁 / 김 미 나



병구 / 김 기 홍



병구처 / 박 경 미



서가 / 김 정 렬



허씨 / 권 성 우



무당 / 이 청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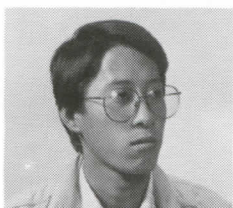
소녀 / 이 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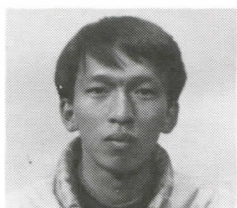
남정1 / 이 효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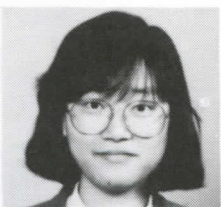
남정2 / 송 영 철



남정3 / 김 윤 종



남정4 / 이 승 옥



아낙1 / 조 혜 영



아낙2 / 정 은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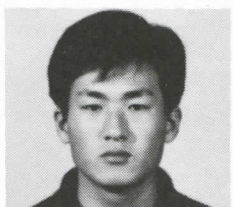
귀신男 / 이 길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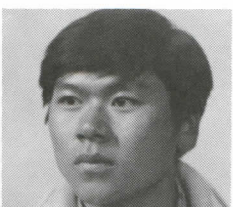
귀신女 / 이 육 주



평수 / 송 재 화



평달 / 고 정 수



영수 / 이 재 신



기획/윤병선
기획보/이경선

진행/이성규 의상/강미열
 무대감독/이상철 김지순
 무대미술/황용대 분장/주형숙
 김지순
 무대장치/윤금석 음향/김연숙
 최단오
 대도구/설진극 조명/김실곤
 기록/양미자
 소품/이언주
 박선주

教師劇團「한겨울」공연보

회수	공연일	작품명	작가	연출기	출연자	장소
1회	73. 9. 14	곰포지선F	김상환	이충섭	주용욱, 양승준, 김문홍, 이상규, 한영희	부산교대
2회	73. 3. 14	개방병실	오해령	이충섭	이상규, 김문홍, 허화청, 박검옥, 서성애, 조미경	"
3회	74. 9. 13	뱃줄	유진오	신용희	이상규, 주용욱, 김문홍, 장옥남, 김옥길	"
4회	74. 10. 28 74. 12. 2	당나무	박양원	서성애	박범식, 이상규, 김문홍, 한영희, 김미열, 김효영	주립극장 시민회관 (해운면)
5회	76. 5. 8	검찰관	고광리	주용욱	강용길, 주용욱, 한영희, 허화청, 정금숙, 황세연	시민회관
6회	77. 4. 15	아득하면되리라	오태영	허영길	강용길, 이상규, 나종기, 주용욱, 김문홍, 김현배, 김현배, 신옥석	"
7회	78. 2. 17	누구세요?	이현화	이충섭	강용길, 나종기, 주용욱, 허화청, 고인숙	"
8회	78. 12. 10	쥐뿔	아가사	이충섭	강용길, 주용욱, 김현배, 나종기, 한상한, 김문홍	"
9회	79. 6. 27	블랙코메디	피터·세퍼	이충섭	김문홍, 송정옥, 이동표, 김인권, 박근선, 한상한	"
10회	80. 6. 22	수직환상	김문홍	이충섭	이장도, 한상한, 나종기, 주용욱, 이동표, 고인숙	"
11회	81. 7. 4	자기의 귀	피터·세퍼	이충섭	강용길, 정복귀, 문현자, 이여옥, 김지순	"
12회	81. 10. 11	새가되어라	김문홍	주용욱	이장도, 김병락, 이동표, 김정렬, 이계복, 윤금석	"
13회	82. 5. 21	시즈워벤지는죽었다.	아돌프가드	김문홍	강용길, 주용욱, 나종기, 한상한, 조소영, 김주옥, 백경순, 권성부, 서미애	"
14회	82. 10. 14	달집	노경식	이충섭	강용길, 송정옥, 김병락, 이동표, 김태숙, 황용대	"
15회	83. 10. 10	호우주의보	김문홍	주용욱	박범식, 나종기, 김문홍, 권성부, 임삼석, 김지순	"
16회	84. 3. 31	악마들의 잔치	김문홍	주용욱	이장도, 주용욱, 나종기, 한상한, 윤금석, 권성부	"
17회	84. 10. 11	카덴자	이현화	이충섭	강용길, 이장도, 이상규, 김문홍, 나종기, 권성부	"
18회	85. 3. 31	四季밖의 겨울	조일도	한상한	황용대, 김병락, 나종기, 정경화, 권성부, 김기홍	"
19회	85. 10. 6	밤의 목시록	정복근	한상한	황용대, 김병락, 정혜숙, 나종기, 권성부, 주한식, 김귀순	"
20회		가시덤불	김문홍	한상한	나종기, 정혜선, 김병락, 김귀순, 이장도, 이효동	"
21회	87. 9. 19	너덜강 돌무덤	박환용	한상한	황용대, 정경화, 이장도, 김문홍, 권성부, 김병락	"
22회	87. 11. 12	한포기 풀꽃	김문홍	이충섭	이장도, 주용욱, 김미열, 이청희, 이경선, 주용욱, 김기홍	"
23회	88. 9. 26	안내봐? 못내봐?	다리오포	이충섭	김병락, 주용욱, 권은경, 이상도, 권성부, 이효동, 박선주	"
24회	89. 4. 9	산수유	오태석	한상한	윤병선, 권성부, 이동표, 우혜선, 이정희, 박경미	부산교대